

시민 안녕 기원 빛고을 구석구석 燈 밝힌다

부처님오신날 기념 '2018빛고을관동회' 이달까지 다채 전통등 전시·음악회·어울림마당·제등행진·대동한마당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축하의 장을 마련할 때 등대를 세우고 다양한 등(燈)을 달아 불을 밝혔다. 등(燈)은 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도구였으며 사람과 생명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었다.

신라 진평왕 12년 팔관회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열리기 시작한 등 축제는 고려·조선을 거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문화의 한마당이 됐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진행된 등 축제는 임금과 신하가 함께 음악과 춤을 즐기고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하는 자리였다.

오는 22일 부처님오신날(사월 초파일)을 기념하는 2018빛고을관동회가 5월말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열린다.

빛고을관동회 봉행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불교연합회와 빛고을나눔나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에 초점을 뒀다. 앞서 지난 3일 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는 봉축탑 점등식이 거행됐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가장 큰 탑으로, 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소원하고 빛고을 전통문화전승관 건립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이번 관동회 기간(24일까지)에는 광주전과 시청에 전통문화의 복원을 상징하는 전통등(燈)을 전시한다. 한국의 설화와 어릴 적 동화에서 들은 오누이조랑미, 백제건국의 주인공 소서노, 산신령등을 비롯해 광주전이 다시 살아나 토종물고기가 아름답게 해엄치는 장면을 형상화한 물고기등을 전시한다. 전영일공방과 광주불교연합회 전통등특별위원회가 참여했다.

이 기간에는 광주전에 포토존을 설치해 전통등 사진촬영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전통등을 관람하는 시민을 위한 작업악회(22일 오후 6시30분)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일 오후 5시에는 5·18민주광장에서 빛고을관동회 어울림마당이 펼쳐진다. 시민과 불자들의 자발적 참여뿐 아니라 각 사찰과 단체에서 연합단을 구성했다.

이어 사찰 스님과 불교신도,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불교의식인 관동법회가 열린다. 법회가 열리는 5·18민주광장은 고려시대 대항사 자리가 있는 곳으로 송유역불정적으로 폐사를 당한 불교유적지다. 당시 대항사 자리에 있던 비로자나 부처님은 중심사에 모셔져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오후 7시 20분부터 제등행진(국기무형문화제 122호)이 펼쳐진다. 광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1만개의 등을 밝혀 행진을 한다.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전, 총장로, 금남로, 아시아문화전당을 도는 것으로, 행진에는 동아시아 불교신자 300여 명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관동회 마지막 행사(오후 8시)는 대동한마당이 예정돼 있다. 인기 가수 박현빈, 연희단을 비롯한 신도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이다. 특히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당놀이 신명탕과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강강술래는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2일(오전11시~오후5시)에는 외국인 문화체험 부스, 전통문화체험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문의 010-2629-1508.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이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희의 문화카레

지난 2009년 4월 필자는 매우 특별한 전시회에 초대 받았다. 서울시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Habib House)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을 잇다'전이였다. 이 전시는 시각예술을 문화외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 정부의 '아트 인 엠버시'(Art in Embassy) 프로그램의 하나였다. 실제로 각국의 미국 대사관 관저는 '아트 인 엠버시' 전통에 따라 신임 대사의 부임에 맞춰 소장미술품을 교체해 외부에 공개한다. 예술을 가까이 하는 대사의 경우 자신의 취향에 맞춰 관저에 전시할 미술품

있고 존엄한 이미지로 그린 작가로 유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컬렉션'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미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내세운 정치적 메시지였다.

오랜 세월 베일에 쌓였던 '청와대 컬렉션'이 9일부터 7월29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청와대는 196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작부터 2006년도 작품까지 약 40년간 수집한 작품 가운데 일부를 선보이는 특별전 '함께, 보다'를 청와대 사랑채(<http://cwsarangchae.kr>)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화 4점, 서양화 8점 등 총 16점이 전

'청와대 컬렉션'이 기대되는 이유

을 고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는다.

'한국과 미국을 잇다'전의 큐레이터(?)는 케슬린 스티븐슨(2008년 9월~2011년 11월 근무) 주한 미 대사였다. 심은경이라는 한국이름도 갖고 있던 그녀는 이날 방문객들과 관저의 구석구석을 돌며 소장품을 소개했다. 당시 전시회의 하이라이트는 '스티븐슨 컬렉션'이었다. 평소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그녀는 관저 미술품의 리스트에 서도호, 강익중, 바이런 김, 니키 리 등 한국작가 및 한국계 미국 작가 15명을 새로 올렸다. 개인적으로 한·미 양국의 문화교류를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바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재임기간에 백악관의 서재에 서부개척시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초상화를 그린 19세기 미국 화가 조지 캐틀린의 작품 12점을 걸었다. 캐틀린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백인의 시선'인 아만적 이거나 왜소한 모습이 아닌 긍지

시되고 사랑까지 옮기기 어려운 벽화 4점 등 10점은 영상으로 공개된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미술품은) 대한민국 정부가 겪어온 역사적 장면의 배경이었고, 해외인사들에게는 한국을 알리는 작품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빛내왔다"며 "이제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실 청와대에는 작가 및 소장배경 등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 미술품'이 많다. 격동의 현대정치사를 거치면서 미술품에 얽힌 사연을 아는 사람들이 최고권력자의 부침과 함께 자취를 감춘 탓이다. 하지만,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위상을 감안하면 소장품들의 '퀄리티'는 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침 사진전이나 입장권 없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 올 봄 청와대 '문화나들이'를 떠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하다. 역대 대통령들의 미적 안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산이 날 부르네' 봄이 우리를 부르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1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회장 황선숙)는 오는 11일 오후 7시 109회 가곡부르기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농성동 서구청 뒤)에서 진행한다.

'이달의 배우는 노래'는 한여섯 시에 작곡가 정영태가 멜로디를 붙인 '산이 날 부르네'다. 초청합창단으로 광주챔버싱어즈(지휘 박호진)가 봄을 찬미한 '어느 봄날', '청산에 살리라', '고향의 봄'을 들려주며 곡식의 '강빛마을 중창단'이 '남촌', '아름

다운 섬진강'을 연주한다. 회원 연주로는 박관규·차주원·김순영·엄평섭·유덕희·황선숙·기세관 회원이 '그리운 사람아', '내 맘의 강물', '산유화', '보리밭' 등을 부른다.

이달의 초청 성악가는 소프라노 강숙자(사진) 전남대 교수로 '진달래꽃', '추억'을 들려주며 낭송가 조경환 시인이 전원별시 '뜨개질'을 낭송한다.

그 밖에 동요 '과수원길'을 비롯해 '그네', '오리', '보리밭', '산촌', '산노을', '사랑하는 마음' 등 다양한 가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마련한다. 문의 010-2694-459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정기강좌 개최...11일 김상봉 교수 특강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5기 정기강좌를 개최한다.

8일부터 내달 6일(오후 7시 30분)까지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카페 노블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인문학, 철학,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강좌와 토론이 이어진다.

월요일에는 인문학입문 시간으로 명혜영 교수가 '페미니즘의 슬픔을 이야기하다-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김청우 박사와 명혜영 교수가 각각 '시 창작, 이론에서 실기까지', '몸으로서의 정신-베르그송 '물질과 기억'을 강의한다.

목요일 인문덕후 시간은 신우진 선생님이 '묵묵히 책을 읽자-십인십책'을 이야



기한다. 원서강독이 진행되는 금요일은 명혜영 교수가 '일본 원서로 읽는 소설, 철학용어도감'을 강의하며 토요일 무비토크 시간(오후 2시)에는 김상봉 교수가 '독립영화제의 대명사, 선대영화제 수상작'을 토대로 시민을 만난다.

한편 오는 11일(오후 7시30분)에는 김상봉(사진)교수의 인문특강 '철학의 현장-4.3과 5·18 마주보기'가 펼쳐진다. 문의 010-4624-1201, 010-9949-8557. /박성천기자 skypark@

국립광주박물관 21일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오는 21일(오후 3시)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31회째를 맞는 그리기 대회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표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지역 소재 초등학교(1~6학년)이면 참가 가능하며 오는 18일

까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에서 신청하면 하면 된다.

10인 이상 단체 참가신청은 별도 양식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062-570-7015) 접수 가능하다. 문의 062-570-7016. /박성천기자 skypark@

여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버스킹' 낭만 문화로 자리잡다

지역 축제 버스킹으로 매력 충전
광주프리마켓페스티벌 4월 개막
'힐링 버스킹' 프로그램, 버스커 사랑 그린 영화

5·18 기획
계속 불려야 할 5·18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예향이 만난 이사람
'신형 잠수함' KIA타이거즈 꽃미남 사이드암, 박정수

전시 리뷰
<호남의 현역 작가들 II>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합동전시

특집
'버스킹' 낭만 문화로 자리잡다

지역 축제 버스킹으로 매력 충전
광주프리마켓페스티벌 4월 개막
'힐링 버스킹' 프로그램, 버스커 사랑 그린 영화

5·18 기획
계속 불려야 할 5·18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예향이 만난 이사람
'신형 잠수함' KIA타이거즈 꽃미남 사이드암, 박정수

전시 리뷰
<호남의 현역 작가들 II>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합동전시

노중훈의 꿈의 여행
운명적인 사랑과 맛있는 음식의 도시 미국 시애틀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북 로맨스' 커뮤이 운영하는 영국 프림로즈힐 북스 & 커나한 북스

매양 초대석

『이순신의 7년』 완간한 작가 정찬주
"인간 이순신" 숨결 담았어요"

문화 화제
윤곽 드러낸 2018광주비엔날레

문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월북시인' 봉인 문 첫 문학관 오장환 문학관

트렌드 따라잡기
돌돌이 키워볼래요? 진화하는 혼자 놀기

지역의 문화 행사
눈부신 전남의 5월 축제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소설가 권터 그라스 vs. 극작가 하이너 뮐러

매양수신부 공동 기획-한국어 국가어항
소박함과 화려함의 남해안권 국가어항들

전통, 역사와 마주하는 전남도시 나주
- 황포돛대 타고 시간 여행 - 목사골 오일마을 푸르름 속으로